

# 한국의 베트남 연구\*

이한우 한국동남아연구소

현대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움뻐왔으나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 그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학술적 베트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6년 말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정책 채택과 1992년 한국-베트남 간 국교 수립과 함께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다. 동시에 한국인 연구자들은 베트남으로부터 통일과 통일 후 사회통합에 대한 경험을 통해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베트남 연구 '붐'을 일으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동안 베트남 전공자들을 다수 배출해냈다. 이들이 현재 베트남 연구의 제2세대로서 한국 내 베트남 연구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와 인적 교류의 확대는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주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회 및 경제·경영 분야에서 대폭 증가했다. 한국의 베트남 연구도 사회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연구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는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제어 베트남, 한국,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례 연구

## I. 머리말

한국과 베트남은 2012년 국교 수립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의 협력관계는 1992년 12월 수교한 이래 경제 분야로부터 시작하여, 문화, 인적 교류 부문에서도 급속히 확대되었다. 양국 간 교역액은 1992년 약 5억 달러로부터 2011년 약 185억 달러로 20년 만에 37배 증가하여, 2011년에 한국은 베트남의 4위 교역 대상국, 베트남은 한국의 15위 교역 대상국이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 부문에서는 1988년 이래 투자승인액 누계로 한국이 2위에 위치해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주최 2012년 하반기 국내학술대회(2012. 11. 15)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한국의 TV 드라마가 1990년대 말부터 베트남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한류를 일으켰고, 이 흐름은 영화, 음악, 음식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는 베트남 내 K-pop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 국민은 각 12~13만 명에 이르렀다. 한국으로 결혼이주한 베트남인 여성은 5만 명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증가하여, 한국 내 외국인 배우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양국 관계가 20년 만에 이 정도로 밀접해진 것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며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양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주변에 위치하여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며 ‘동병상련’의 정을 느낄 수 있고,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함께 받아 양국의 문화적 공감대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역사상 양국의 사신들은 중국에서 조우하여 시문을 나누곤 했다. 또한 12세기에 베트남인이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선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13세기에 베트남의 리(Ly) 왕조가 멸망하면서 한 왕자가 한국으로 피신하여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한국인들은 냉전 시기에 한국이 남베트남에 파병하여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로써 희생자를 낳았고 베트남의 통일을 저해했다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을 좀 더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갖는다. 탈냉전 시기에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필요한 상대였다. 베트남은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여 많은 유희 노동력을 채용할 공업부문이 필요했고,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해외로 이전할 단계였다. 이후 한국은 경공업뿐만 아니라 건설, 제철 등 중공업 부문에도 투자하여 베트남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고, 베트남에서 공업화가 진전되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문으로 이전하고 있다.

이렇게 친밀해진 양국관계가 굳건히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양국민들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지 않으면 안 되며, 그 기반이 되는 학술 연구도 심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그간 베트남에 대해 얼마나 연구했는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아직 매우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베트남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 1987년 창립된 일본베트남연구자회의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이며, 이는 1999년 기준 유럽 전체의 베트남 연구자 수와 비슷한 규모다(古田

元夫, 2000: 227).

이 연구는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의 발전 과정과 주요 연구 분야 및 쟁점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시기적 범위는 해방 이후부터 2012년까지이며, 베트남 연구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발전 과정, 주요 연구 분야의 특성 및 쟁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베트남 연구’의 범위로, 한국을 주된 근거지로 활동하는 연구자의 연구 및 한국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한다. 필자는 연구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웹사이트(<http://www.riss.kr>)에서 주제어를 ‘베트남’, ‘안남’, ‘월남’, ‘월맹’으로 입력하여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검색했다. 검색된 목록에서 베트남 연구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만을 가려내 연구 분야별·시기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그간 베트남 연구의 추세를 파악했다.<sup>1</sup> 이외에 필자가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했다. 한편, 동남아 연구 내 베트남 연구 비중의 변화 추세를 보기 위해 한국동남아학회 발간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의 전체 대비 베트남 연구 논문 비중을 찾아보았다.<sup>2</sup>

<sup>1</sup> 제목에 베트남을 명기한 2개국 비교연구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했으나, 3개 이상 수개국에 대한 비교연구는 베트남 국가 또는 지역에 관심을 두기보다 비교 자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 제외했다. 베트남에 대한 함의를 찾기 위해 타국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와 베트남 사례 연구이지만 중점이 타국에 있는 연구도 제외했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처럼 한국 외교정책 또는 국제관계 연구는 엄밀히 보자면 베트남 연구에서 제외해야 하나, 여기서는 폭넓게 해석하여 베트남 연구 범위에 포함했다.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도 좁게 보면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이나 베트남인 디아스포라 연구로 간주하여 포함했다.

<sup>2</sup> 이 밖에도 관련 논문이 『역사학보』, 『동양사학연구』,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한국문화인류학』, 『아시아연구』, 『베트남연구』 등 학회 발간 학술지 및 대학 연구소 발간 학술지 중 『동남아연구』(한국외국어대 동남아연구소), 『동아연구』(서강대 동아연구소), 『국제지역연구』(한국외국어

## 2. '베트남' 용어 고찰

베트남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앞서 '베트남' 용어가 한국 내에서 쓰이게 된 경위를 그간의 연구들을 통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sup>3</sup> 한국에서 베트남을 지칭하는 용어는 일본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의 용례에 따라 '안남(安南)'이었다(김영진, 1937).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연방은 '불령 인도지나(佛領印度支那)'(약칭 佛印), 인도차이나는 '인지(印支)'로 불렸다. 해방 이후에도 '안남'이 쓰이다가(윤동수, 1954), 곧 '월남(越南)'(박노식, 1956; 최치륜, 1958), '베트남'(표문화, 1958; 이영택, 1960; 조영식, 1960; 서상규·임동직, 1961; 심홍택, 1963)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 경우 '안남', '월남', '베트남'은 베트남 전역을 지칭하는 것이었다.<sup>4</sup> 한편 정치학자 조효원(1955: 26)은 자신의 저서 『亞細亞政治論』에서 베트남을 '비에트남', 신세훈(1965)은 자신의 시집에서 '비에뜨·남', 시인 김준태(1970)는 '비에트남'이라고 하여 원어 발음에 보다 더 가깝게 표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1960년 전후에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남베트남을 '월남'(외무부 정무국, 1959), 북베트남을 '월맹'(내외문제연구소, 1961)으로 지칭하면서, 베트남 전역은 '베트남' 또는 '월남', 남베트남은 '월남', 북베트남은 '월맹'으로 혼란스레 지칭되었다. 단지 '월맹'은 학술적 연구에서보다는 정부 관련 기관에서 발간된 책자에서 많이 쓰이는 경향이였다.<sup>5</sup> 이후 '베트남'과 '월남'이 함께 통용되다가, 1990년대부터 '월남' 용례가 급격히 줄고 '베트남'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 국제지역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서울대 국제학연구소), 『비교문화연구』(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전남대 5·18연구소) 등에 게재되고 있다.

<sup>3</sup> 필자는 왜 한국에서 'Viet Nam'이 '비엠티'로 표기되지 않고 '베트남'으로 표기되었는가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의 '베트남'이 일본식 표기방식인 'ヴェトナム(베트남)' 또는 'バトナム(베트남)'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sup>4</sup> 최치륜(1958)은 남부 베트남을 '반공권 월남'이라고 칭했다.

<sup>5</sup> <http://www.riss.kr>에서 주제어를 '월맹'으로 하여 검색하면, 제목에 '월맹'을 포함한 연구는 학위 논문 2개, 국내학술지 게재 논문 1개에 비해, 단행본 4권이 검색된다. 단행본은 국토통일원, 내외문제연구소, 일해연구소 발간 책자다. '월맹'이 학술연구에 쓰인 예로는 동남아연구실 편(1974) 등을 들 수 있다.

### III. 베트남 연구의 발전 과정

#### 1. 해방 전 연구

한국의 베트남 연구는 일제 강점기 베트남에 체재하던 한 한국인 연구자에 의해 시작되었다(윤대영, 2009). 김영건은 1931년부터 1940년까지 하노이 소재 프랑스 극동학원에서 사서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는 1937년 『한글』 편집자 이운재 선생 앞으로 보낸 “안남 하노이 통신”에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의견을 적었다(김영건, 1937). 그는 일본으로 귀환 이후 『日佛安南語會話辭典』(1942),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1943) 등 책자를 발간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연구는 이후 한국 내 베트남 연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그가 일본에서 하노이로 파견된 사서였기에 그의 연구를 순수히 ‘한국의 베트남 연구’ 범위에 포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그의 연구가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의 효시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를 제1세대 연구자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제0세대 연구자로 평가하고자 한다.

#### 2. 해방 후 베트남 연구의 태동

한국인들은 일제 강점기에 피식민 국민으로서 베트남인들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판 보이 찌우(Phan Boi Chau, 潘佩珠)가 구술하고 양계초가 편집한 『월남망국사』를 한글본으로 발간하여 돌려 읽으며 망국의 한을 공감하고 식민지 저항의식을 불태웠다.<sup>6</sup> 그러나 1945년 해방 이후 격동기를 겪으며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 이후 초기에 베트남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수행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1950~53년 전쟁을 겪으며 역내 반공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해 가

<sup>6</sup> 이에 대하여는 최기영(1985), 한상도(2009) 등을 참조.

는 과정에서 남베트남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다.<sup>7</sup> 이런 변화에 부응하여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학술적 연구라고 할 만한 것은 조효원 연세대 정치학 교수가 1955년 그의 저서 『亞細亞政治論』 속에 인도차이나에 관한 개괄적 설명을 삽입한 것과 1959년에 발간한 『월남의 정부조직』 정도가 있을 뿐이었다.<sup>8</sup> 1950년대에 베트남만을 단독으로 다룬 연구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베트남에 대한 설명은 외국 역사 또는 세계지리 교과서류에 포함되거나(윤동수, 1954; 박노식, 1956; 표문화, 1958) 외국여행기에 포함되어 있었다(최치륜, 1958). 1950년대에 발간된 단행본으로는 한국 외무부 정무국이 1959년에 발간한 『월남공화국』이 있으나 업무참고용 소책자라고 판단된다. 이후 농림부가 1960년에 『월남의 농업협동조합』을 발간했다.

베트남 관련 단행본의 발간이 증가한 것은 한국이 1964년부터 남베트남에 파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1965년에 함재건이 『이것이 베트남이다』, 국제문제연구소가 『베트남 -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을 출간했는데, 이는 베트남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65~66년에 발간된 베트남 관련 서적 대다수는 국제문제연구소의 『월남전과 한국의 안전보장』, 원용석의 『월남전과 한국』 등과 같이 정책성 연구서들이었다. 1966년에 최상수가 출간한 『한국과 월남과의 관계』가 베트남 역사와 한국-베트남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 본격적 첫 학술 연구서였다.

국내 학위 논문으로는 박희주가 1964년에 “동남아세아 정치집단의 역할: 미얀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낸 것이 처음이었다. 이어 한상선이 1965년에 “월남시장에 관한 실증적 고찰”이라는 석사 학위 논문을 냈다. 국내 박사 학위 논문으로는 이대진이 1972년에 “월남 일부지역에 있어서의 장관 내 세균감염에 대한 역학적 고찰”을 내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인

<sup>7</sup> 베트남이 1954년 7월 제네바협정으로 분단된 후 베트남 남부의 베트남국은 1955년 국민투표를 통해 베트남공화국으로 전환했고 1955년 10월 26일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응오 딘 지엠 정부가 출범하자 한국은 바로 그 다음날 이를 승인하여 공식 외교관계를 맺었다.

<sup>8</sup> 이 논문이 해방 이후 한국에서 발간된 베트남에 대한 첫 학술적 논문인가는 확인하기 어렵다. 조효원 교수는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문사회과학 부문에서는 이은호 교수가 1972년에 “The Role of the Military in Nation-building: South Vietnam and Korea”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이 최초였고, 이어 유인선 교수가 1978년에 “Law and Famil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으로 역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김기태 교수가 1983년에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베트남 전공자의 성장

필자는 현재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연구자들을 주전공자와 사례 연구자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주전공자는 베트남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고 계속 베트남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며, 사례 연구자들은 여타 분야를 전공하면서 베트남 관련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학자들이다.<sup>9</sup> 주전공자의 시기별 박사 학위 수여자 수를 표 1에서 보면, 1980년대까지 3명, 1990년대 전반 4명, 1996~2000년 8명, 2001~2005년 8명, 2006~2012년 5명이었다. 상기 이은호, 유인선, 김기태 교수를 한국 내 베트남 전공자 제1세대라고 한다면, 이후 박사 학위 취득자들은 제2세대 전공자 그룹에 포함시킬 수 있다. 박승우(2009)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제2세대 베트남 전공자들을 구분하면, 제2세대 내 제1코호트는 1990년대 전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4명, 제2코호트는 1990년대 후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8명, 제3코호트는 2001년 이래 박사 학위를 받은 13명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전반 10년간 16명이 베트남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 베트남 전공 ‘붐’을 일으켰다. 2006년 이후 베트남 전공 박사 학위 취득자는 5명으로 감소했고 2010년 이후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학문 분과별로는 정치학자가 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역사학자 7명, 인류학자 4명 순이다. 이 논문에서 구분한 제1, 2세대를 합한 베트남 주전공자들의 학문 분과 비중은 정치학 32%, 역사학 25%, 인류학 14% 순이다. 박승우

<sup>9</sup> 베트남 주전공자는 박승우(2009)의 베트남 지역연구 전문가의 범주보다 더 좁게 설정한 것이다.

표 1 주전공자 박사 학위 취득 연도 및 학문 분야

분야	1972	1978	1983	1990	1991	1994	1995	1996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어학								1												1
문학						1														2
역사학	1						1	1						1			1			7
정치학	1		1	1			1	1	1				1		1				1*	9
경제학							1			1								1*		3
인류학														2	1					4
사회학						1*									1	1				2
합계	3					4			8				8				5			28

주: \* 인류학자 1명은 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베트남과 무관한 주제를 택했으나 학부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했고 장기간 베트남 연구를 수행해 왔기에 주전공자에 포함시켰다. 경제학자 1명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내 투자 관련 연구, 정치학자 1명은 베트남과 북한에 대한 비교연구를 박사 학위 논문 주제로 삼았지만 넓게 보아 주전공자에 포함시켰다.

\*\* 정치학자 2명이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전공분야가 좁게 보면 한국 대외정책 관련 연구이고 이들이 박사 학위 취득 이후 베트남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지 않아 주전공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009: 230)의 조사에서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의 박사 학위 학문 분과가 정치학 46%, 인류학 16%, 경제학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 전체와 비교해볼 때 베트남 주전공자들의 학문 분과별 비중은 정치학이 상대적으로 적고 역사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을 보인다. 단지, 한국의 베트남전쟁 과병 관련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정치학자 2명을 주전공자로 포함시킨다면, 학문 분과별 베트남 전공자 비중은 정치학 37%, 역사학 23%, 인류학 13%로, 동남아 전체 상황에 조금 더 근접하게 된다. 베트남 주전공 경제학자 비중이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 전체에서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베트남을 사례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 경제학자가 드물지만 사례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IV. 최근 연구 경향

### 1. 베트남 연구의 분야별 변화

최근 베트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kr>)에 등록되어 있는 1996~2012년간 학술지 게재 논문과 석·박사 학위 논문을 시기별로 분류했다.

시기별 학술지 게재 논문 수는 표 2에서 보듯이 2001년까지 연간 40편 이하였으나, 이후 2006년까지 연간 40~60편으로 증가했고, 2007년 70편, 2009년 87편, 2010년 120편, 2011년 100편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그 수는 2012년 69편에 그쳤다.<sup>10</sup> 이처럼 베트남 관련 논문이 2000년대 말에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 기간 연구 분야별 논문 수는 역사 분야가 179편으로 가장 많았고,<sup>11</sup> 경제·경영 분야가 176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회 분야와 어문학 분

<sup>10</sup> 2013년 초 조사 시기에 학술연구정보 서비스에 2012년 발간 논문 정보를 모두 등록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sup>11</sup> 역사 논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베트남전쟁 관련 연구를 현대사 분야에 포함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베트남 연구에서도 역사 분야 논문이 많은 경향을

표 2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분야별 분포

분야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어문학		1	3	3	2	9	6	19	10	11	10	11	8	7	10	19	14	5	148
역사		3	4	2	9	11	7	9	10	10	6	14	14	9	18	22	19	12	179
정치/법/국제관계/군사		6	10	9	2	7	7	8	7	7	5	6	10	6	10	13	10	4	127
사회		4	3	8	5	2	3	7	13	4	4	6	17	14	21	23	18	17	169
문화/예술/건축/도시		2	3	0	2	4	3	5	3	4	6	3	9	11	10	19	10	6	100
경제/경영		6	11	11	4	4	4	8	5	9	11	17	11	13	11	15	17	19	176
자연/기타		0	1	6	3	3	5	6	2	8	3	5	1	7	7	9	12	6	84
합계		22	35	39	27	40	35	62	50	53	45	62	70	67	87	120	100	69	983

표 3 석·박사 학위 논문의 분야별 분포

분야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어문학		1	2	1	0	0	2	2	1	4	2	3	6	3	7	7	6	8	55
역사		1	0	0	1	0	0	0	0	1	0	1	3	3	2	0	2	2	16
정치/법/국제관계/군사		5	3	5	5	2	3	8	4	0	4	4	4	2	8	6	1	8	72
사회		0	1	2	0	5	0	1	6	4	8	3	9	13	16	19	18	22	127
문화/예술/건축/도시		0	1	0	0	1	0	1	0	1	0	1	1	7	3	9	7	6	38
경제/경영		9	10	7	5	1	4	4	4	6	3	18	8	11	14	13	38	49	204
자연/기타		0	2	0	2	0	1	5	1	0	4	1	2	6	3	5	3	13	48
합계		16	19	15	13	9	10	21	16	16	21	31	33	45	53	59	75	108	560

야가 그 뒤를 따랐다. 연구 분야별로는 2008년을 예외로 한다면 2000년대에 어문학과 역사 분야의 논문이 증가했고, 정치 분야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사회 분야의 논문 수가 증가했고, 문화, 예술, 건축, 도시 관련 연구들도 증가했다. 경제·경영 관련 연구는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 더욱 많아졌으며, 이 가운데 경영 관련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베트남 관련 석·박사 학위 논문은 표 3에서 보듯이 2005년까지 연간 10~20편이었으나, 2006년 31편으로 증가한 이후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여 2012년에 108편을 기록했다. 분야별 분포를 보면, 경제·경영 관련 논문이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동시에 2000년대 중반부터 베트남인 저자의 논문이 많아지는 현상이 보이는데, 베트남 유학생들 가운데 경제·경영 분야를 전공으로 택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판단된다. 2000년대 중반 이래 사회 분야의 학위 논문 수가 증가한 것도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사회 분야의 논문 수 증가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석·박사 학위 논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인 저자의 수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다가 2011년부터는 월등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표 4에서 보듯이 베트남인 저자 수가 2004년 이전에는 한국 및 기타 국가 출신 저자 수보다 적었으나 2004년에 각 8명으로 동등해졌고, 2007년과 2009년을 제외한 2004~2010년간 양자 간의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2011~12년에 베트남인 저자 수는 한국 및 여타 국가 출신 저자 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여 2011~12년간 학위취득자가 많아진 결과라고 판단된다. 베트남인 학생들은 대부분 석사 학위자들이며, 그들 중 다수가 경제·경영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하거나 결혼이주 여성 관련 주제에 관심을 갖고 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표 4 석·박사 학위 논문 저자의 국적

연도 국적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인 및 기타	16	18	15	9	6	8	16	12	8	11	16	24	24	29	31	19	42
베트남 인	0	1	0	4	3	2	5	4	8	10	15	9	21	24	28	56	66
합계	16	19	15	13	9	10	21	16	16	21	31	33	45	53	59	75	108

## 2. 연구 경향 평가

베트남 연구 경향을 평가해 보자면, 먼저 연구의 양적 성장을 들어야겠다. 학술지 게재 논문 수가 2000년대 들어 연간 40~60편이었다가 2007년에 70편으로 증가하고 2010~11년에 연간 100편 이상으로 증가한 것은 한국 내 베트남 연구의 급성장을 잘 나타내준다. 이런 현상은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전반 기간 동안 베트남 주전공자들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례 연구자들이 베트남 관련 논문을 많이 출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 분야 및 경제·경영 분야 주전공자의 수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논문 수가 특히 2000년대 중반 이래 증가한 것은 사례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많았음을 나타낸다.

동남아 지역연구 내에서 주전공자들에 의한 베트남 연구의 비중은 20% 정도로 추정된다. 박승우(2009: 235)의 연구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가 가운데 베트남 전문가는 23%였다. 한국 내 동남아 관련 대표적 학회인 한국동남아학회에서 발간하는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으로 동남아 연구 내 베트남 연구의 비중을 추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에서 보듯이 1992~2012년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들 중 베트남 관련 논문 수는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16~20%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동남아시아연구』가 주로 주전공자들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장이기에, 베트남 주전공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동남아 전공자 내 상대적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아 베트남 관련 논문의 비중도

표 5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논문 중 베트남 관련 논문의 비중

연도	1992~1995년		1996~2000년		2001~2005년		2006~2010년		2011~2012년	
베트남	9	20%	10	19%	15	16%	15	18%	8	17%
전체	44		52		91		84		47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이 『동남아시아연구』 이외 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도 많아, 이 논문들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기에 동남아 연구 내 베트남 연구의 비중을 추정하는데 한계도 있다.

연구 분야별로 특기할 만한 점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 관련 주제, 2000년 중반부터는 베트남 경제 및 양국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한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관련 주제의 논문도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양국 수교 이래 경제 분야에 관심이 급증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의 증가와 연관된다.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나 근래에는 경영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도 많아진 특성을 나타낸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2000년대 중반 이래 사회 분야의 논문 수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결혼이주 여성의 증가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라 이에 대한 연구가 급증한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실용적 요구가 경제·경영 분야 및 사회 분야 학술연구를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베트남 전쟁, 통일 및 사회통합과 관련한 연구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출간되었다. 이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당사자로서 베트남전쟁을 재고찰하려는 시도와 함께 베트남의 통일과 사회 통합 과정의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 외에 고전문학, 현대문학, 문화, 예술, 건축, 도시건설 및 자연과학 등 여러 분야의 논문이 증가했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 3. 연구 기본서의 출간과 국제적 소통

베트남 전공자들은 베트남 연구를 위한 전공서적과 사전을 출간했다. 한국 내 베트남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서적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사 통사는 유인선(1984; 2002)과 송정남(2000a; 2010)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동남아시아사 통사는 최병욱(2006a)에 의해 발간되었다. 일본에서 『安南史』 3권본 통사가 1881년에 출판된 것에 비하면(古田元夫, 2000: 229), 한국에서 베트남 통사의 발간이 매우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베트남어 사건의 편찬은 조재현(2006)과 송정남·이강우·박연관(2011)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로써 한국에서의 베트남 연구를 위한 기본 서적은 갖춘 셈이 되었다.

한편, 국제적으로 학문적 소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어로 출판되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김세진(Kim, 1970), 한승주(Han, 1978), 박준영(Park, 1981) 등 한국인 연구자들이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관련한 논문들을 외국 학술지에 발표했다. 이는 좁게 보면 베트남 연구라기보다 한국 대외정책 관련 연구라고 해야겠으나 넓게 보아 베트남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근래에 영어로 발표된 연구를 보자면, 유인선(Yu, 1990; 1999a; 1999b; 2001; 2006), 최병욱(Choi, 2003; 2004a; 2004b) 등이 베트남 역사 관련 연구 결과를 발간했다. 정연식(Jeong, 1997b)이 베트남 정치 관련 논문, 이한우(Lee, 2003; 2005)가 베트남 사회문화 관련 논문을 발간했다. 최호립(Choi, 2007)이 베트남 의례 관련 논문, 채수홍(Chae, 2011)이 베트남 노동 관련 논문을 발간했다. 또한 최호립(チェ・ホリム, 2010)이 일본어로, 윤대영(Youn, 2011)이 프랑스어로 연구물을 발간했다. 더불어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들 수 있다.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류학자 권현익(Kwon, 2006; 2008)이 베트남전쟁 관련 저서와 논문을 발간했고,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학자 김지영(Kim, 2004; 2011)이 베트남 노동 관련 논문을 발간했다. 이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베트남어로 된 연구물을 출간했다. 이처럼 2000년대 들어 한국인 베트남 연구자들의 세계 학계와의 소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 V. 주요 연구 분야 및 쟁점

이하에서는 베트남 주전공자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에도 한국 내에서 많이 논의된 연구주제를 포함하여 주요 연구 분야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 1. 현대 이전 역사 분야

### 1) 베트남 유교 사회와 가족제도

역사 분야에서는 유인선(2005)이 베트남 사회의 유교 사회화 문제에 대해 고찰했다. 그는 중국 문화의 베트남에 대한 영향은 14세기까지 미미했고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지배계층에 한정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유인선(1981; 1982; 1996b; 1997; Yu, 1990; 1999b)은 전통 사회의 가족제도와 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베트남이 중국으로부터 가족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에서처럼 강력한 가부장권은 없었고 부부는 여러 면에서 동등했다고 분석했다. 최병욱(2003b; 2006b)도 베트남 전통 사회, 특히 남부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김현재(2011)가 전통혼인 관념에 대하여 연구했다.

### 2) 베트남 국가형성과정, 남부 '베트남'의 베트남화

다음으로 역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베트남의 국가형성과정에서 남부 '베트남'의 베트남화 문제다. 특히 최병욱(2000a; 2004a; 2004b; 2008b; 2008c; 2009a; 2010b; Choi, 2003)이 지역주의 문제와 함께 베트남의 응우옌(Nguyen) 왕조 시기 남부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추진된 동화정책과 통합과정상 문제에 천착하여 많은 연구성과를 산출했다. 또한 유인선(1999)과 하순(2000), 최병욱(2008a; 2010a)은 베트남 남부 사회·문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 3) 식민지 하 베트남 사회 변화

현대 이전, 특히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 이후 베트남 사회의 변화 문제는 몇 명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김종욱(2002; 2003; 2009; 2011b)은 식민지배 하 북부 농촌 마을에 집중한 사례 연구와 식민지배 시기 사회 변화 일반에 대한 연구(2004; 2005; 2010; 2011a) 결과를 냈다. 송정남(1997; 1999; 2000b; 2001a; 2001b; 2001c; 2002a)은 프랑스 식민지화 과정과 식민지배 하 베트남의 토지제도 변화에 관해 연구했다. 노영순(2002; 2003; 2006c)이 식민지배 시기 베트남인과 프랑스, 일본 등 식민지배자와의 관계를 연구했고, 또한 노영순(2011b; 2012b; 2012c)은 식민지

배 시기 베트남의 군주권, 시민권 등에 대하여도 연구했다. 윤대영(2010a), 노영순(2012b)은 프랑스 식민 지배 초기 베트남 내 사회개혁운동에 대하여 연구했다.

#### 4) 신지식의 전파와 사회주의운동

프랑스 식민지배 시기를 전후한 새로운 지식의 베트남으로의 전파와 지식인 문제에 대한 연구는 윤대영(2007; 2011)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개괄적 연구는 먼저 이범준(1986), 유인선(1991), 박종철(1993)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노영순(2001; 2004c; 2006b)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그는 특히 1930년 전후 베트남 국내외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해 탐구했다.

## 2. 현대 이전 교역과 대외관계

### 1) 현대 이전 교역활동

현대 이전 베트남의 교역 활동에 대하여는 최병욱(2000b; 2002; 2003a; 2011a)이 연구를 통해 베트남의 교역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밝혔다. 베트남의 해항도시와 대외 교류에 대하여는 노영순(2011c; 2012a)이 연구 결과를 냈다.

### 2) 베트남-중국 관계

베트남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유인선(1996a; 2009)이 베트남-중국 관계에 관한 연구논문을 여러 편 출간하다가 마침내 이를 종합하여 2012년에 저서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을 출판했다. 이 저서는 통시적으로 양국 관계를 개관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야마모토 다츠로(山本達郎, 1975)의 연구서에 비견되나, 야마모토의 연구서가 편저인 데 반하여 유인선의 연구서는 단독 저서이고 현대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지닌다. 송정남(2004a; 2004b; 2006; 2012)도 현대 이전 베트남과 중국 및 태국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출간했다.

### 3) 한국-베트남 간 역사적 교류와 비교

한국과 베트남 간 역사적 교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례가 베트남 리(Ly) 왕조 시대인 12, 13세기에 베트남 왕자들이 고려로 귀화한 사건이다.<sup>12</sup> 특히 리 룡 뜨엥(Ly Long Tuong, 李龍祥) 왕자가 귀화하여 화산(花山) 이 씨의 시조가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베트남인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에 대해 일찍이 최상수(1966)가 서술한 바 있고, 근래에 조재현(Cho, 1994), 강은해(2011) 등이 연구했다. 한편, 양국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만나 교류한 역사 중 가장 많이 드는 사례는 16세기말 이수광(李睟光)과 풍 각 관(Phung Khac Khoan, 憑克寬)이 북경에서 만나 창화시문(唱和詩文)을 주고받은 일일 것이다(최상수, 1966: 70). 최병욱(2009b), 엄경흠(2010) 등은 한국과 베트남의 사신들이 중국에서 만나 교류한 것을 연구했다. 더불어 최병욱(Choi, 2012)은 고려인삼의 베트남 내 유통에 대해 연구했다.

베트남 내 한인사회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김기태(1999)가 식민지배로부터 해방 직후의 한국인 정착의 역사를 연구했고, 채수홍(2005)이 현대 호찌민시 한인사회를 연구했다.

현대 이전 시기 한국인의 베트남에 대한 인식에 관하여는 박희병(2009), 한상도(2009), 김용태(2010), 윤대영(2010b), 노대환(2011), 허경진·김성은(2011), 서경희(2012) 등이 연구했다. 양국 역사에 대한 비교 연구는 윤대영(2010c), 노대환(2010), 배항섭(2010), 이상욱(2010), 최희재(2010), 한도현(2003a)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윤충로(2005)는 분단과 자유주의 체제 하 권위주의 정권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함께 했던 한국의 이승만 정부와 베트남의 응오 딘 지엠(Ngo Dinh Diem) 정부를 비교하는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논문을 기반으로 저서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 형성사』를 출판했다.

<sup>12</sup> 리 즈엥 콘(Ly Duong Con, 李陽焜)은 베트남 리 왕조 제4대 인종(仁宗)의 셋째 아들이며 제5대 신종(神宗)의 아우였는데, 신종과 왕위를 다투다가 북송으로 망명했으나 송나라 내 불안정으로 1127년에 고려로 들어와 경주에 정착하여 정선(旌善) 이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리 룡 뜨엥(Ly Long Tuong, 李龍祥)은 베트남 리 왕조의 제6대 영종(英宗)의 일곱 번째 아들로 1226년 변란으로 왕족들이 살해당하자 피신하여 고려로 귀화하여 화산(花山) 이 씨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한국사 학자들은 정선 이 씨의 시조에 대하여 아직 확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나 화산 이 씨의 시조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 4) 식민지배 하 상호이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통으로 식민지배 하에 처한 것은 양 국민 간 공감의 계기였다. 특히 판 보이 쩌우(Phan Boi Chau, 潘佩珠)의 『월남망국사』 한글 번역본이 출판되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읽히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트남 주전공자(노영순, 2004a; 유인선, 2004)들이 판 보이 쩌우의 사상과 혁명 활동 및 그가 주도한 유신운동에 주로 관심을 가졌다면, 한국사학자들(최기영, 1985; 박상석, 2010)은 『월남망국사』의 한국 내 유통과 사회적 영향에 주목했다.<sup>13</sup> 또한 한국인 연구자들은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에서 한국과 베트남 혁명가들의 협력과 상호이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사료 부족으로 아직 충분히 연구하지 못했다. 드물게 염인호(2007)가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선독립동맹과 베트남독립동맹의 혁명 활동을 비교했고, 노영순(2011a)이 1910년대 초 한국 혁명가와 베트남 혁명가가 중국 또는 일본에서 만나 망국의 한을 나누는 배경을 연구했다.

### 3. 문학과 예술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전해경(2006a; 2006b)이 베트남과 한국의 설화와 전기소설을 비교했고, 배양수(Bae, 2001a)가 한국의 〈춘향전〉과 베트남의 〈끼에우 전(Truyen Kieu)〉을 비교하는 연구 결과를 냈다.<sup>14</sup> 이외에도 박희병(2000) 등 국문학자나 한문학자들이 한국과 베트남의 고전문학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했다. 베트남 문학사에 대한 포괄적 연구로 국문학자 최귀묵(2010)이 『베트남문학의 이해』라는 저서를 출판했다.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배양수(1998; 2002; 2005; 2010)가 개혁으로 인해 변화하는 사회를 소설 속에서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분석했다. 베트남 영화에 관하여는 배양수(2006)의 연구가 현재까지는 유일하다. 베트남 내 박물관 설립과 문화정치에 관하여는 이한우(2010b), 최호림(2010b; 2011b)이 연구 결과를 냈다. 예술 분야에서는 김인규(2010; 2011a; 2011b)가 베트남의 도자기에 관한

<sup>13</sup> 더불어, 국어학자 안명철·송엽휘(양계초, 2007)가 『월남망국사』를 새로 한글로 번역하여 출판함으로써 학계에 기여했다.

<sup>14</sup> 응우옌 주(Nguyen Du)의 저작, 『주엔 끼에우』는 안경환(응웬 주, 2004)과 최귀묵(완유, 2004)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었다.

연구 논문을 여러 편 출간했다.

#### 4. 베트남전쟁과 통일 관련 문제

##### 1) 베트남전쟁 재인식과 한국군 참전 문제<sup>15</sup>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문제가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논쟁적 주제였다. 먼저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식에서는, 기존의 자유수호론이 베트남전쟁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념전쟁으로 보았으나(이선호, 2001), 베트남전쟁을 민족해방전쟁으로 규정한 수정주의적 시각이 일찍이 이영희(1972; 1973) 및 리영희(1985), 이후 강정구(1996; 1997), 이삼성(1998)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원인에 관하여 1980년대까지 주류는 안보론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었다. 이 주장은 한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공산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또는 미국의 참전 압력 혹은 요청에 응하여, 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를 위하여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했다는 시각이다(Kim, 1970; Han, 1978; Park, 1981; 이선호, 2001). 여기에 대하여 1990년대에 들어 홍규덕(1992; 1999), 최동주(1996) 등에 의해 제시된 수정주의적 시각은 한국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베트남전에 파병했다는 것이다. 김기태(1982)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한국 안보를 확고히 하며, 베트남전쟁 참전으로부터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미국의 지원으로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복합적 원인을 들었다. 이기종(1992)도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과 함께 한국이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다고 절충적 입장을 취했다. 베트남전쟁 연구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산출되었다. 한홍구(2001; 2003), 박태균(2006; 2007), 홍석률(2009) 등이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검토했다. 더불어 김봉중(2000; 2010)은 베트남

<sup>15</sup> 한국에서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식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제반 시각에 대하여는 이한우(2006b)를 참조.

전쟁 참전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을 연구했고, 김정배(2010, 2011)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냉전체제에 대하여 연구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국제관계에 대하여는 이은호(1990b)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베트남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문제는 최동주(2001), 조재호(2011)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윤충로(2007a; 2007b; 2008)는 베트남전쟁 시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사이에서의 한국의 모호한 정체성과 참전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재벌중심구조 및 이념 등이 형성된 것에 관해 연구했다. 한편,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군의 용병 문제와 민간인 학살 문제가 1990년대 말부터 대두되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큰 이슈였으나, 사망자들에 대한 제례에 관련한 권현익(2012; Kwon, 2006; 2008)의 연구 이외에 치밀한 학술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의혹은 일찍이 1976년부터 제기되었으나 한국인에 의해서는 구수정(1999)에 의하여 1999년 5월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용병과 베트남 민간인 학살 주장에 대하여 여영무(2001), 이선호(2001) 등은 한국군이 독자적 작전권을 갖고 있었기에 용병이라는 평가가 옳지 않다고 보았고 베트남전쟁이 게릴라전 위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살상했을 수는 있어도 민간인 학살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후, 베트남 민간인 학살 현장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었고, 사회운동가 김현아(2002; 2004)가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전쟁과 여성』을 발간하는 등 “전쟁 기억을 둘러싼 전쟁”을 벌였다. 베트남전쟁 기억에 관련한 학술적 연구는 윤충로(2009; 2010), 최정기(2009), 최호림(2009; 2010d)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한편 박진임(2002; 2003; 2004; 2008a; 2008b; 2012)은 현대 미국과 한국 소설 및 영화를 통해 베트남전의 의미와 참전 한국군의 위상을 논했고, 송승철(1993), 고영직(2000), 고명철(2003), 장두영(2008), 장윤미(2009), 이한우(2010d; Lee, 2005), 방재석(2011) 등도 한국 현대 소설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의미를 분석했으며, 윤영천(2007; 2008)은 한국 현대시에 베트남전쟁이 어떻게 형상되었는가를 분석했다. 최근에 김성란(2011)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실을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미디어 분석으로 탐구했고, 김미란(2010a; 2010b)은 베트남전쟁의 남성성 표상과 미디어를 통한 베트남 참전담론에 관해 연구했다. 더불어 권혁태(2012)와 남기정(2012)은 일본의 베트남전 반전운동에 관해 연구했다.

## 2) 통일과 사회 통합

베트남의 통일과 통일 이후 사회 통합 문제는 한국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끈 연구 주제였기에, 이와 관련한 학술 연구와 함께 정책 연구도 다수 산출되었다. 일찍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사례 연구자들인 박종철(1986; 1994; 1996), 이수훈(1989), 함택영(1989) 등이 관련 연구 결과를 냈다. 이후 김도태(1994)가 베트남 통합과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냈고, 전경수(1995)가 독일과 베트남 통합과정에 대한 저서를 출판했다. 이후, 손정식(1995), 이은호(1997a; 1997b), 조재현(2002), 노영순(2007), 이한우(2007a; 2009) 등이 관련 연구 결과를 냈다.

## 5. 현대 정치, 경제, 사회

### 1) 경제개혁과 경영 문제

베트남이 1986년 말 제6차 공산당대회에서 ‘도이머이(Doi Moi, 쇄신)’ 정책을 채택한 이래 전면적 개혁을 수행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은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제부문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에 부응하여 사례 연구자들이 먼저 베트남의 경제개혁 정책 및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했다. 초기에 안승욱(1986; 1989; 1997)이 경제개혁 관련 연구논문을 출간했다. 구성열(1992; 1993; 1995; 2002)이 경제개혁 관련 편저 세 권을 출판하면서 초기 베트남경제 연구에 기여했고 이후에도 관련 연구(2001; 2006)를 출간했다. 더불어, 손정식(1997; 1998; 2000; 2005; 2006)이 베트남의 금융, 국영기업 등에 관한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구성열(1995; 2002)과 함께 편저 출판에 참여했다. 오인식(1997a; 1997b; 2002; 2005; 2006)도 경제개혁, 무역 및 투자 관련 연구논문을 출간했다.

이외에도 사례 연구자인 경제학자 여러 명이 한두 편의 베트남 관련 논문을 출간했다. 이후 권율(1999a; 1999b; 2000; 2001; 2002)이 베트남 경제개혁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국영기업 개혁, 미국-베트남 간 무역협정, 대 베트남 원조 등 문제를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냈다. 더불어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개혁 문제를 연구한 이한우(2011a)가 경제개혁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한 저서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를 출판했고, 이강우(2003a; 2003b; 2004)가 경제사적 시각에서 국영기업 개혁에 관한 연구를 산출했다. 최근에는 안경환(2000; 신군재·안경환,

2008), 오인식(2005) 등의 연구처럼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경영상 문제에 관한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나희량(2008, 2011)의 연구처럼 베트남 경제의 달러화, 철강산업 분석 등 각론적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 2) 베트남 국내 정치 및 대외관계

베트남의 정치체제 및 정치 변동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이계희(1986), 박종철(1989), 김국진(1992) 등 사례 연구자들과 이은호(1990a; 1998), 조재현(1991) 등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후 연구는 베트남 주전공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바, 이한우(2001b; 2007b; 2011b)가 공산당대회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으며, 베트남 국회(2006a; 2008), 베트남의 국가-사회 관계(2010a)를 연구했다. 정연식도 베트남을 코포라티즘 체제로 분석한 연구(1999; Jeong, 1997b)를 낸 이래 정치체제 변화에 대한 연구(2002; 2005)를 냈다. 더불어, 노영순(2004b)이 공산당-국가와 대중의 관계를 연구했고, 이한우(2001a; 2002b; 2012)가 개혁과정에서의 농민정치 및 사회주의 이념 변화의 문제를 다뤘다.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연구는 전상인(1994), 박종철(1997), 정연식(1999), 최호림(2008) 등에 의해 산출되었다.

베트남의 대외관계에 관한 연구도 초기에는 사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관 하에 수행된 연구 결과가 『한국과 국제정치』에 게재되었다(강태훈, 1986; 김국진, 1986; 김기태, 1986; 양승윤, 1986; 정친구, 1986; 황병무, 1986). 이후 이한우(2003), 황귀연(2003)이 베트남-중국 관계를 연구했고, 김기태(2000; 2003), 조재현(Cho, 1994), 황귀연(2005) 등이 한국-베트남 관계를 연구했다. 김국진(1986), 홍규덕(1991; 1993; 1997), 권경희(1996), 이강우(2007) 등은 베트남-미국 간 관계정상화과정 및 양국 관계를 연구했다.

## 3) 개혁과 사회 변화

연구자들은 베트남이 개혁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농촌과 도시에 관하여 연구했다. 전경수(1993)는 베트남이 개혁에 착수한 직후 베트남 농촌의 현지조사에서 겪은 일들을 『베트남일기』로 엮어내 베트남 사회를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후, 전경수·한도현(1996), 한도현(1998; 2000; 2005), 김호섭 외(1999) 등이 베트남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냈다. 최호림(2003a; 2003b;

2003c; 2003d; 2004; 2005; 2007)은 개혁정책 집행 이래 베트남 사회에서 민간의례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여러 편 출간하며 베트남에서 개혁정책 채택 이래 민간의례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

채수홍(2003a; 2009)은 개혁과정에서의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공장 내 노동정치에 관하여 연구했다. 채수홍이 공장 내 정치라는 미시적 접근을 했다면 이한우(2010c)는 코포라티즘 노동체계 속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문제를 지적했다. 베트남 내 한국 투자 기업에서의 노사문제에 대한 연구(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99)도 수행되었다. 이외에도 채수홍(2007)과 최호림(2010a; チェ・ホリム, 2010)이 동아시아 국가로 이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 문제를 연구했고, 하순(2003; 2007; 2011)이 미국 내 베트남 이주자들에 관해 연구했다. 최호림(2012)은 베트남 내 소수종족에 대하여 연구했고, 최병욱(Choi, 2004b), 김현재(2010; 2012)는 화교에 대하여 연구했으며, 이슬람에 관해서는 김종욱(1999)과 안경환·송경근(2009)이 연구했다.

베트남의 민간신앙에 관하여는 김종욱(1998), 송정남(2002b; 2003) 등이 연구 결과를 냈다. 현대 베트남 사회에 만연한 부패문제에 관하여는 김호섭(1997), 김현재(2008), 이강우(2008)가 연구 결과를 냈다. 한편, 1990년대 말부터 한국 대중문화가 베트남에 유행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한우(2002a)와 김성란(2008)이 베트남 내 한류에 대해 분석했다. 양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는 김성란(2010)이 미디어 분석, 육상효(2010)가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 이한우(2010d)가 한국 현대 소설, 최호림(2010c)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했다.

#### 4) 결혼이주

베트남인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에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학술연구와 정책 연구가 급증했다.<sup>16</sup> 베트남인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는 너무 많아 여기에

<sup>16</sup> 2011년 한국인 남성들의 국제결혼 대상자 중 베트남인 여성이 7,636명(34.3%)으로 가장 많았다(통계청, 2012: 11). 2011년 기준 한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수에서도 베트남인은 37,516명으로 일반 중국인(34,989명), 한국계 중국인(29,184명)보다 많은 수였다(법무부, 2012: 580).

다 제시할 수 없으므로 많이 읽히는 논문 몇 편을 소개하고자 한다. 베트남 주전공자로서는 김현재(2007)가 베트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결혼이주 상황과 그 원인을 분석한 연구를 냈다. 결혼이주 관련 연구를 수행한 국내 연구자들은 대부분 결혼 중개 과정과 결혼이주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김민정 외(2006), 김현미(2006) 등이 결혼 과정과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 VI. 맺음말

현대 한국에서 베트남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정치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고려로 한국 내에서 베트남에 대한 명칭이 베트남, 월남, 월맹 등으로 혼란스럽게 쓰였던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전쟁특수에 있었다. 1975년 베트남이 통일된 후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희소하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그러다가 베트남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198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86년 말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정책의 채택과 1992년 한국-베트남 간 국교 수립과 함께 한국에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증가했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실용적 연구에 대한 요구가 늘기 시작했다. 동시에 한국인 연구자들은 베트남의 통일과 통일 후 사회 통합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으려고 했다.

이러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베트남 연구 '붐'을 일으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 10년 동안 베트남 전공자들을 다수 배출해냈다. 이들이 현재 베트남 연구의 제2세대로서 한국 내 베트남 연구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양국 간 경제협력의 심화와 인적 교류의 확대는 베트남 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주전공자들뿐만 아니라 사례 연구자들의 연구가 사회 및 경제·경영 분야에서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한국의 베트남 연구도 사회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한국 내 대학원에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에 의한 연구도 적지 않게 생산되고 있다.

그간의 연구성과들을 보면, 정치학, 역사학, 인류학 베트남 전공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사례 연구자들이 경제 및 사회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해왔다. 한편으로는 한국 역사, 한국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베트남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여 적지 않은 연구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는 학술 연구를 수행하면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주제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베트남에 대한 연구의 깊이와 일반인들의 인식은 아직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내 베트남 연구의 역사가 아직 짧아 연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듯하다. 지금은 베트남 연구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일부 연구자들이 이미 세계 학계와 호흡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바, 향후 과제는 이를 더 확대하고 심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투고일: 2013년 5월 12일 | 심사일: 2013년 5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1일

## 참고문헌

- 강은혜. 2011. “한국 귀화 베트남 왕자의 역사와 전설: 고려 옹진현의 이용상 왕자.” 『동북아문화연구』 26, 223-240.
- 강정구. 1996. “베트남의 분단과 미국의 역할.” 『동남아시아연구』 4, 113-141.
- \_\_\_\_\_. 1997.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4, 79-114.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강태훈. 1986. “베트남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 219-239.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편. 1999. 『현지화 경영과 노사문제: 베트남 내 한국계 기업』.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 고명철. 2003. “베트남전쟁 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현대소설연구』 19, 291-312.
- 고영직. 2000. “한국문학과 베트남 전쟁.” 『내일을 여는 작가』 19, 196-211.

- 구성열. 1992. “베트남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김달중 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서울: 법문사.
- \_\_\_\_\_. 편. 1993.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전망』,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_\_\_\_\_. 편. 1995.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_\_\_\_\_. 2001. “베트남 노동시장의 개혁: 과제와 방향.” 『동남아시아 연구』 11(1), 193-217.
- \_\_\_\_\_. 편. 2002. 『베트남의 법제도와 시장개혁』,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_\_\_\_\_. 2006. “한국-베트남 무역 및 인적자원교류: 추이와 전망.” 『동남아시아 연구』 16(1), 1-34.
- 구수정. 1999. “‘띤장’ 마을 가는 길: 베트남에서 온 편지.” 『당대비평』 9, 173-188.
- 국제문제연구소. 1965. 『베트남 -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 \_\_\_\_\_. 1966. 『월남전과 한국의 안전보장』,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 권경희. 1996. “베트남-미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1975-1995).” 『국제정치논총』 36(1), 247-265.
- 권속도. 2009.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과정 연구: 북한, 베트남 사례 비교.”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권윤. 1999a. “베트남 경제개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개도국형 체제전환의 성격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1999b.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8(1), 7-45.
- \_\_\_\_\_. 2000.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 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1, 69-123.
- \_\_\_\_\_. 2001. “미·베트남 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베트남연구』 2, 27-60.
- \_\_\_\_\_. 2002.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원조전략과 정책과제.” 『베트남연구』 3, 61-93.
- 권현익 저. 유강은 역. 2012. 『학살, 그 이후: 1968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인류학』, 서울: 아카이브 휴머니스트.
- 권혁태. 2012. “‘국경’ 안에서 ‘탈/국경’을 상상하는 법: 일본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탈영병사.” 『동방학지』 157, 113-166.
- 김국진. 1986.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 191-217.
- \_\_\_\_\_. 1992. “베트남의 역사적 형성과 정치구조.” 김달중 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서울: 법문사.
- 김기태. 1982.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과 한미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1986. “외교사적으로 본 베트남과 태국과의 분쟁: 베트남공산화 전후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2), 155-189.
- \_\_\_\_\_. 1999. “한·월 교류 관계 속에서의 1945년 전후의 베트남 거주 한국인.” 『아시아 지역연구』 2, 2-10.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 \_\_\_\_\_. 2000. “한국 민간단체들의 베트남 관련 활동 고찰.” 『베트남연구』 1, 9-41.
- \_\_\_\_\_. 2001. “한국인의 베트남 문학연구 고찰.” 『베트남연구』 2, 7-26.
- \_\_\_\_\_. 2002. 『전환기의 베트남』. 서울: 조명문화사.
- \_\_\_\_\_. 2003. “한국·베트남 수교 이후 양국의 교육문화 협력 실적.” 『베트남연구』 4, 1-20.
- 김도태. 1994. “베트남 편.” 김국신·김도태·여인곤·황병덕.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2』. 서울: 한울.
- 김미란. 2010a. “베트남 참전담론과 미디어: ‘탈식민 민족주의’적 관점과 ‘자국중심적 참전론’, 그 변화과정에서의 미디어의 대중동원 전략.” 『역사와 문화』 19, 105-137.
- \_\_\_\_\_. 2010b. “베트남전 재현 양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성의 (재)구성: ‘아오자이’와 ‘베트콩’, 그리고 ‘기적을 낳는 맹호부대’의 표상 분석.” 『역사문화연구』 36, 193-228.
- 김민정·유명기·이혜경·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39(1), 159-176.
- 김봉중. 2000. “냉전, 베트남, 그리고 역사적 기억: 로버트 맥나마라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미국사연구』 12, 161-187.
- \_\_\_\_\_. 2010. “닉슨의 베트남 정책과 닉슨독트린.” 『미국사연구』 31, 169-198.
- 김성란. 2008. “베트남에서의 ‘한류’에 대한 표상적 분석: 여성 표상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2, 61-79.
- \_\_\_\_\_. 2010. “다른 문화를 ‘안다’는 것: 미디어에 나타난 베트남 분석을 통해.” 『미디어, 젠더 & 문화』 15, 5-36.
- \_\_\_\_\_. 2011.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 베트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1(1), 217-252.
- 김영진. 1937. “안남 하노이 통신.” 『한글』 5(4), 464-465.
- 김용태. 2010. “한국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 『한국한문학연구』 45, 271-301.
- 김인규. 2010. “베트남 청화백자의 출현과 전개.” 『수완나부미』 2(1), 1-16.
- \_\_\_\_\_. 2011a. “동남아시아 도자기에 보이는 중국도자기의 영향 - 베트남, 타이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7(2), 7-20.

- \_\_\_\_\_. 2011b. “베트남 중부지역 출토 무역도자기 - 9·10세기 중국과 서아시아 도자기를 중심으로.” 『한국도자학연구』 8(1), 24-41.
- 김정배. 2010. “베트남전쟁과 사회주의진영,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76, 315-347.
- \_\_\_\_\_. 2011. “베트남전쟁과 미국, 그리고 냉전체제.” 『역사와 경계』 80, 249-285.
- 김중욱. 1998. “베트남 민간신앙 체계에 관한 고찰.” 『동남아연구』 7, 43-66.
- \_\_\_\_\_. 1999. “인도차이나의 이슬람세계: 베트남 사례.” 『동남아연구』 8, 57-74.
- \_\_\_\_\_. 2002. “프랑스 식민지배하 베트남 북부 농촌의 부경(附耕) 제도.” 『베트남연구』 3, 147-174.
- \_\_\_\_\_. 2003. “프랑스 식민지배 하의 북베트남 촌락 행정 개혁: 하동민(省) 메찌싸(社)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13(1), 199-237.
- \_\_\_\_\_. 2004. “프랑스 식민지배하의 베트남 근대성: 민주 개념의 형성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4(1), 247-283.
- \_\_\_\_\_. 2005. “20세기 초 베트남의 언론 출판 운동.” 『베트남연구』 6, 29-51.
- \_\_\_\_\_. 2007. “베트남의 식민지 근대사 연구동향.” 『베트남연구』 8, 23-48.
- \_\_\_\_\_. 2009. “프랑스 식민지배기 북베트남 향촌사회에서 여성의 토지 소유: 하동(Ha Dong)성 메찌(Me Tri)사 사례.” 『동남아연구』 18(2), 1-29.
- \_\_\_\_\_. 2010. “20세기 전반 베트남 농촌여성의 경제 활동과 지위: 내상(內相)에서 난인(難人)으로.” 『동남아연구』 19(2), 3-28.
- \_\_\_\_\_. 2011a. “19세기 말 베트남 근왕(勤王)운동의 실패 원인에 관한 재고찰.” 『동남아연구』 21(2), 137-179.
- \_\_\_\_\_. 2011b. “프랑스 식민정부의 교육개혁과 북베트남 향촌사회의 대응: 하동(Ha Dong)성 메찌(Me Tri)사 사례.” 『동남아연구』 20(2), 63-90.
- 김준태. 1970. 『참깨를 털면서』, 서울: 창작과비평사.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아. 2002.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서울: 책갈피.
- \_\_\_\_\_. 2004. 『전쟁과 여성』, 서울: 여름언덕.
-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9-254.
- \_\_\_\_\_. 2008. “베트남의 부패,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고찰.” 『한국부패학회보』 13(2), 1-33.

- \_\_\_\_\_. 2010. “베트남 화인(華人) 사회의 형성 과정, 그 역할과 특징에 대한 고찰. 『인문논총』 25, 193-235.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2011. “베트남 전통혼인과 그 특징에 대한 고찰: 내재된 전통 관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1(1), 85-114.
- \_\_\_\_\_. 2012. “17~19세기 초 화인의 베트남 남부로 이주와 사이공의 형성.” 『동남아연구』 22(1), 101-126.
- 김호섭. 1997.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Doi Moi)과 관료부패.” 『한국정치학회보』 30(4), 383-400.
- 김호섭 · 공유식 · 한도현 · 신치용. 1999. “아시아 농촌사회의 구조와 변화: 베트남의 시장 지향적 개혁과 소득 분배의 변화 - 홍하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9, 67-94.
- 나희량. 2008. “베트남 철강산업의 변화 및 전망 - 경제개방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8(1), 151-180.
- \_\_\_\_\_. 2011. “양대 경제위기와 달러화 현상: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사례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1(2), 125-153.
- \_\_\_\_\_. 2012.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 학술지 분석 및 방향성 모색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2(2), 43-93.
- 남기정. 2012. “베트남 ‘반전탈주’ 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 『일본학연구』 36, 73-96.
- 내외문제연구소. 1961. 『월명의 공산주의』. 서울: 내외문제연구소.
- 노대환. 2010. “19세기 조선 외교 정책의 변화 - 베트남 응우옌 왕조와의 비교.” 『조선시대사학보』 53, 141-178.
- \_\_\_\_\_. 2011. “18세기 후반~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베트남 인식.” 『조선시대사학보』 58, 139-169.
- 노영순. 2001. “1928년 사이공 바르비에 거리 5번지 살인사건과 베트남청년혁명동지회 남부지부.” 『동남아시아연구』 11(1), 241-268.
- \_\_\_\_\_. 2002. “베트남에서 한자의 쇠락: 프랑스 식민주의와 베트남 민족주의 사이에서.” 『아세아연구』 45(4), 137-164.
- \_\_\_\_\_. 2003. “일본점령기에 대한 베트남의 역사인식과 평가: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45, 102-135.
- \_\_\_\_\_. 2004a. “러일전쟁과 베트남 민족주의자들의 유신운동: 동유운동과 동경의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90, 127-154.

- \_\_\_\_\_. 2004b. “베트남의 당-국가와 대중의 관계: 대중조직의 변화와 시민단체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사총』 59, 125-163.
- \_\_\_\_\_. 2004c. “초기 베트남 공산주의운동의 국외 네트워크와 재외활동가, 1928~1934.” 『동양사학연구』 88, 263-302.
- \_\_\_\_\_. 2006a. “2004~2005년 한국 동남아시아 역사학자들이 본 동남아시아 역사의 단면들.” 『역사학보』 191, 419-432.
- \_\_\_\_\_. 2006b. “인민전선기 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의 합법투쟁.” 『사총』 63, 89-123.
- \_\_\_\_\_. 2006c. “프랑스-일본 제국의 협력과 베트남 친일 협력집단.” 『아세아연구』 49(4), 154-183.
- \_\_\_\_\_. 2007. “분단 전기(1954~1963년) 베트남 통일문제.” 『아세아연구』 50(3), 7-38.
- \_\_\_\_\_. 2011a. “망국민의 恨辭, 「桑海淚談」의 의미와 그 시공간적 맥락 연구: 요코하마와 칸톤에서의 베트남인 해외혁명활동(1906~1915)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39, 391-417.
- \_\_\_\_\_. 2011b. “식민시기 사이공/코친차이나에서의 귀화법과 베트남인 프랑스시민권자.” 『역사와 경계』 78, 137-171.
- \_\_\_\_\_. 2011c. “식민해방도시 사이공의 형성: 19세기 말~20세기 초 사이공 도시와 항구.” 『해양도시문화교섭학』 4, 103-138.
- \_\_\_\_\_. 2012a. “남중국해 해방도시의 「일본신질서」 해역으로의 편입과 그 함의: 하이난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문제연구』 7, 95-124.
- \_\_\_\_\_. 2012b. “베트남 뜨득 황제 전반기의 관료군주제 고찰 - 군주와 고위관료가 내외환, 개혁, 실지회복에 대처하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총』 76, 287-321.
- \_\_\_\_\_. 2012c. “황제에서 보호국 군주로의 이행: 1867~1885 베트남에서의 격변.” 『동북아문화연구』 31, 563-580.
- 농림부. 1960. 『월남의 농업협동조합』. 서울: 농림부
- 東南亞研究室 編. 1974. 『東南亞細亞論』.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리영희. 1985. 『베트남전쟁: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서울: 두레.
- 朴魯植. 1956. 『(表式)世界地理要解』. 서울: 明世堂.
- 박상식. 2010. “베트남 문학 전근대에서 근대로: 『월남망국사』의 유통과 수용.” 『연민학지』 14, 81-104.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사회과학 분야 제2세대 동남아 지역연구자에 대한 심층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박종철. 1986. “베트남의 정치적 통합: 당·국가기구와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한국과

- 국제정치』 2(2), 3-31.
- \_\_\_\_\_. 1989. “베트남의 체제개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5(1), 25-46.
- \_\_\_\_\_. 1993. “베트남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기원, 1910~1945.” 『동남아시아연구』 2(1), 197-219.
- \_\_\_\_\_. 1994. “베트남 통일후 사회통합.” 『통일문제연구』 16, 81-106.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_\_\_\_\_. 1996. “통일베트남 남·북부의 갈등과 사회주의 개혁개방.” 『역사비평』 34, 56-66.
- \_\_\_\_\_. 1997. “베트남의 도이 모이 이후 사회적 갈등과 방어적 시민사회.” 『사회과학』 36(1), 173-199.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박진임. 2002. “베트남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남성성과 자존심을 찾아서: 〈람보〉.” 『문학과 영상』 3(2), 93-111.
- \_\_\_\_\_. 2003.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의 특성과 참전 한국군의 정체성.” 『한국현대문학연구』 14, 111-139.
- \_\_\_\_\_. 2004.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재현 - 팀 오브라이언의 『숲의 호수에서』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36, 83-101.
- \_\_\_\_\_. 2008a. “님은 먼 곳에, 베트남전도 먼 곳에: 〈님은 먼 곳에〉의 베트남전 재현 연구.” 『문학과 영상』 9(3), 615-641.
- \_\_\_\_\_. 2008b. “베트남 여성이 다시 쓰는 베트남 전쟁: 미국 작가들의 베트남 전쟁 소설과의 비교를 통한 르 리 헤이슬립의 『하늘과 땅이 바뀌었을 때』 연구.” 『미국사연구』 28, 207-239.
- \_\_\_\_\_. 2012. “베트남전의 기억과 그 기억에의 저항: 바비 앤 메이슨의 『베트남에서(In Country)』 연구.” 『비교문학』 57, 95-130.
- 박태균. 2006.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 미국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74, 144-189.
- \_\_\_\_\_. 2007.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80, 288-311.
- 박희병. 2000. “한국, 중국, 베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연구 - 『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을 대상으로.” 『대동문화연구』 36, 35-78.
- \_\_\_\_\_. 2009.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한국문화』 47, 159-17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박희주. 1964. “동남아시아 정치집단의 역할: 미얀마, 인도네시아, 월남을 중심으로.”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방재석. 2011. “베트남전쟁을 통한 의식의 변화양상 비교연구 - 《무기의 그늘》과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6, 395-426.
- 배양수. 1998. “‘도이 · 머이’ 이후 베트남 소설에서의 관념 변화.” 『외대논총』 18(1), 697-713. 부산외국어대.
- \_\_\_\_\_. 2002. “문학작품을 통해 본 베트남.” 『황해문화』 36, 55-69.
- \_\_\_\_\_. 2005. “시장경제의 비극: 베트남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5(2), 113-140.
- \_\_\_\_\_. 2006. “혁명영화에서 상업영화로: 베트남 영화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50, 421-449.
- \_\_\_\_\_. 2010. “응웬비엣하의 『신의 기회』에 대한 논쟁 연구.” 『외국문학연구』 39, 123-143.
- 배항섭. 2010. “19세기 조선과 베트남의 토지개혁론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 토지소유를 둘러싼 제도와 관습의 차이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6, 65-98.
- 법무부. 2012. 『2011년도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과천: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서경희. 2012. “‘조완벽전’에 나타난 이방, 이방인 서사의 의미.” 『동방학』 25, 59-99.
- 徐祥圭 · 林東稷. 1961. 『旅窓』. 서울:文學社.
- 성태현. 1989. “베트남의 대외경제관계와 한국 · 베트남의 경제협력방안.” 『한국과 국제정치』 5(1), 105-137.
- 손승호. 2008. “한국기업 베트남 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1996~2000년 투입산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손정식. 1995.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통합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 『경제연구』 16(2), 23-40.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_\_\_\_\_. 1997. “베트남의 금융개혁과 은행경영의 과제.” 『경제연구』 18(2), 35-53.
- \_\_\_\_\_. 1998. “베트남 경제개혁: 유인 시스템.” 『경제연구』 19(2), 73-96.
- \_\_\_\_\_. 2000. “베트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0(1), 1-28.
- \_\_\_\_\_. 2005. “베트남의 국영기업 주식회사화에 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5(1), 205-235.
- 손정식 · Hoang Thi Than Nhan. 2006. “베트남 주식회사화 정책의 성공사례 연구: HAPACO.” 『경제연구』 27(2), 1-19.

- 송승철. 1993. “베트남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 『창작과 비평』 80, 77-94.
- 송정남. 1997. “프랑스의 베트남 植民地化 考察: 1802~1862年 응웬(Nguyen)朝의 排外 思想을 중심으로.” 『釜大史學』 21, 233-256.
- \_\_\_\_\_. 1999. “베트남 남부의 영토확장과 토지제도 일고찰 -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까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36, 49-71.
- \_\_\_\_\_. 2000a. 『베트남의 역사』.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_\_\_\_\_. 2000b.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지 개발 - 1885년에서 1930년까지.” 『역사와 경계』 38, 45-74.
- \_\_\_\_\_. 2001a. “베트남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5(2), 79-100.
- \_\_\_\_\_. 2001b. 『베트남의 토지제도』.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 \_\_\_\_\_. 2001c. “프랑스 식민지하의 남(南)베트남 토지제도 - 토지제도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5(3), 163-186.
- \_\_\_\_\_. 2002a. “19세기 초 베트남 남부의 토지제도 - 私田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3, 129-145.
- \_\_\_\_\_. 2002b. “베트남 성황신제(城隍神祭)에 관한 연구: 옌 서(Yen So: 안소(安所))마을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6(3), 213-236.
- \_\_\_\_\_. 2003. “베트남 딩(dinh: 정(亭))에 관한 연구 - 옌서(Yen So:안소(安所))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7(3), 219-247.
- \_\_\_\_\_. 2004a. “월중관계에 관한 연구: 後레朝(Le: 黎) 前期의 朝貢과 册封을 中心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8, 711-729.
- \_\_\_\_\_. 2004b. “占城의 大夢抗爭에 관한 研究.” 『베트남연구』 5, 29-45.
- \_\_\_\_\_. 2006. “중세(中世)베트남의 외교(外交) - 대몽항쟁(對蒙抗爭)을 소재로.” 『국제지역연구』 10(1), 205-228.
- \_\_\_\_\_. 2010. 『베트남 역사 읽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_\_\_\_\_. 2012. “전통시대 베트남과 태국의 관계: 베트남의 『大越史記全書』 등을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18(2), 37-64.
- 송정남 · 이강우 · 박연관 엮음. 2011. 『한국어-베트남어사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신군재 · 안경환. 2008. “효율적인 계약체결을 위한 베트남인의 협상관행에 대한 연구.” 『국제상학』 23(2), 27-46.
- 申世薰. 1965. 『비에트 · 남 葉書』. 서울: 토목출판사.
- 沈洪澤. 1963. 『親善郵遞夫世界一周記』. 서울: 동성문화사.

- 안경환. 2000. “베트남에서의 성공적 FDI를 위한 추진전략 -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1, 125-146.
- 안경환·송경근. 2009. “베트남 서남부 째 족의 이슬람.”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9(2), 1-20.
- 안승욱. 1986.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한국과 국제정치』 2(2), 57-94.
- \_\_\_\_\_. 1989.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 『한국과 국제정치』 5(1), 47-82.
- \_\_\_\_\_. 1995. “사회주의경제 체제전환기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1997.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13(2), 29-84.
- 양계초 편. 안명철·송엽휘 역. 2007. 『역주 월남망국사』. 서울: 태학사.
- 양승윤. 1986.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아세안.” 『한국과 국제정치』 2(2), 241-272.
- 엄경흠. 2010. “芝峯 李暉光의 在明京 外國 使臣 交流에 대하여 - 『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을 중심으로.” 『동양한문학연구』 30, 179-202.
- 여영무. 2001. “과월국군 용병론과 양민학살설에 대한 반론.” 『군사』 42, 1-49.
- 염인호. 2007. “조선의용군(조선독립동맹)과 월남독립동맹.” 『한국근현대사연구』 42, 40-61.
- 오세철. 1992. “베트남의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동 - 프랑스 식민시대 이후를 중심으로.” 김달중 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정치·경제·사회·문화구조와 정책』. 서울: 법문사.
- 오인식. 1997a. “베트남의 투자환경분석.” 『비교경제연구』 5, 541-578.
- \_\_\_\_\_. 1997b. “체제전환국의 국유기업 개혁: 베트남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3(1), 123-148.
- \_\_\_\_\_. 2002. “베트남의 산업발전 전략.” 『사회과학연구』 15, 1-27. 상명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 \_\_\_\_\_. 2005. “한국기업의 직접투자동기 및 경영애로 분석: 베트남 진출기업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12(2), 55-91.
- \_\_\_\_\_. 2006. “한국과 베트남간 쌍무무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동남아시아연구』 16(1), 35-62.
- 완유(阮攸). 최귀목 역. 2004. 『취교전(翠翹傳)』. 서울: 소명출판.
- 외무부 정무국. 1959. 『월남공화국』. 집무참고자료 각국편람. 서울: 외무부.
- 元容奭. 1966. 『越南戰과 韓國』. 서울: 元無任所長官室.

- 유인선. 1981. “월남 여조사회에서의 가족제도와 재산상속관행.” 『아세아연구』 24(1), 1-12.
- \_\_\_\_\_. 1982. “월남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연구』 25(2), 167-181.
- \_\_\_\_\_. 1984. 『베트남사』, 서울: 민음사.
- \_\_\_\_\_. 1985. “회고와 전망: 동양사학계, 1979~1984, 東南亞·印度.” 『역사학보』 108, 332-338.
- \_\_\_\_\_. 1991. “호지명과 베트남 공산주의, 1925~1945: 공산주의의 초기수용과정.” 『아시아문화』 7, 143-171.
- \_\_\_\_\_. 1996a. “베트남역사와 중국: 정치적·문화적 관계를 중심으로.” 『남방문화』 2, 74-86.
- \_\_\_\_\_. 1996b. “前近代 베트남사회의 兩系的 性格과 女性的 地位.” 『역사학보』 150, 215-248.
- \_\_\_\_\_. 1997. “전근대 베트남의 중국가족제 수용과 변용 - 가부장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5, 25-50.
- \_\_\_\_\_. 1999. “베트남인의 남진과 남부문화의 형성.” 『동방학지』 105, 331-394.
- \_\_\_\_\_.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서울: 이산.
- \_\_\_\_\_. 2004. “관 보이 찌우(Phan Boi Chau, 1867~1940): 방황하는 베트남 초기민족주의자.” 『역사교육』 90, 181-206.
- \_\_\_\_\_. 2005. “베트남 여조(黎朝)의 성립과 유교이념의 확립: 불교이념으로부터 유교이념으로.” 『동아연구』 48, 5-58.
- \_\_\_\_\_. 2009. “전근대 베트남의 對中國 認識 - 조공과 대등의식의 양면성.” 『동북아역사논총』 23, 389-436.
- \_\_\_\_\_.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양국관계의 어제와 오늘』, 파주: 창비.
- 육상효. 2010. “한국 영화와 TV 드라마에 나타난 베트남 여성상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20(2), 73-99.
- 윤대영. 2007.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 연대의식(連帶意識)과 자민족중심주의(自民族中心主義)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동아연구』 53, 293-326.
- \_\_\_\_\_. 2008. “한국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의 제약상: ‘隱遁’에서 ‘疏通’으로.” 『역사학보』 199, 371-383.
- \_\_\_\_\_. 2009. “김영건(金永健)의 베트남연구 동인(動因)과 그 성격: 1930~40년대, 그의 ‘전변무상(轉變無常)’한 인생 역정과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연구』 19(3), 57-

- 100.
- \_\_\_\_\_. 2010a. “19세기 후반 응우옌 쩌엥 토(Nguyen Truong To)의 개혁 논의와 응우옌(Nguyen) 왕조의 대응.” 『역사학보』 206, 211-243.
- \_\_\_\_\_. 2010b. “19세기 후반~20세기 초, 한국의 베트남 재인식 과정과 그 성격.” 『동양사학연구』 112, 191-221.
- \_\_\_\_\_. 2010c. 『마주보는 두 역사, 인천과 하이 풍』. 인천: 인천문화재단.
- \_\_\_\_\_. 2011. “19세기 후반~20세기 초 베트남의 ‘新書’ 수용 - 초기 개혁운동의 기원과 관련하여.” 『동양사학연구』 117, 361-402.
- \_\_\_\_\_. 2012. “한국 동남아시아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흐름.” 『역사학보』 215, 329-348.
- 尹東洙. 1954. 『(綜合)外國歷史』. 서울: 三省社.
- 윤영천. 2007. “베트남전쟁과 동아시아 문학의 연대: 북베트남·한국 현대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4, 476-504.
- \_\_\_\_\_. 2008. “동남아시아와 한국 현대시.” 『동남아시아연구』 18(1), 1-36.
- 윤충로. 2004. “반공독재국가 형성과 국가능력 비교연구: 남베트남 지엠정권과 남한 이승만정권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5.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 형성사』. 서울: 선인.
- \_\_\_\_\_. 2006. “파월(派越) 기술자의 베트남전쟁 경험과 생활세계의 변화: 빈넬(Vinnell)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1, 217-250.
- \_\_\_\_\_. 2007a. “베트남전쟁 시기 한, 미, 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담론 201』 9(4), 171-203.
- \_\_\_\_\_. 2007b.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경제와 사회』 76, 196-221.
- \_\_\_\_\_. 2008. “베트남전쟁 시기 ‘월남재벌’의 형성과 파월(派越)기술자의 저항: 한진그룹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9, 93-128.
- \_\_\_\_\_. 2009. “구술을 통해 본 베트남전쟁.” 『사회과학연구』 17(1), 228-263.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2010.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념과 기억의 정치.” 『사회와 역사』 86, 149-180.
- 응웬 주 저. 안경환 역. 2004. 『쭈옌 끼에우』. 부산: 문화저널.
- 이강우. 2003a. “도이머이시대의 베트남국영기업 개혁과정.” 『베트남연구』 4, 105-129.
- \_\_\_\_\_. 2003b. “베트남국영기업 관리체계 개혁에 관한 연구.” 『동남아연구』 12, 1-16.
- \_\_\_\_\_. 2004. “베트남국영기업의 주식회사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 공산당과 정부 문건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5, 47-68.

- \_\_\_\_\_. 2007. “베트남-미국 관계의 고찰.” 『베트남연구』 8, 49-64.
- \_\_\_\_\_. 2008. “도이머이시대 베트남의 부패와 반부패.” 『동남아연구』 17(2), 123-138.
- 이계희. 1986. “베트남 정치리더십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2(2), 33-56.
- 이기중. 1992. “한국군 베트남 참전의 결정요인과 대외관계의 변화.” 『국제정치논총』 31, 61-92.
- 이대진. 1972. “월남 일부지역에 있어서의 장관내 세군감염에 대한 역학적 고찰.”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범준. 1986. “베트남 공산주의 운동의 기원과 전개.” 『동아연구』 9, 303-345.
- \_\_\_\_\_. 1991. 『동남아공산권연구: 베트남 · 캄푸치아 · 라오스』. 서울: 박영사.
- 이삼성. 1998. “미국의 세기와 베트남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서울: 한길사.
- 이상욱. 2010. “베트남과 한국의 전근대 과거제(科擧制) 비교 연구 시론.” 『연민학지』 14, 105-130.
- 이선호. 2001. “베트남전쟁의 재음미와 참전 한국군.” 『한국동북아논총』 20, 181-209.
- 이수훈. 1989.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통합노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5(1), 83-104.
- 李承憲. 1968. 『南베트남民族解放戰線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이영택. 1960. 『다른나라 지리』. 서울: 동아출판사.
- 이영희. 1972. “베트남전쟁(I): 1945년부터 1956년까지.” 『창작과 비평』 7(2), 291-315.
- \_\_\_\_\_. 1973. “베트남전쟁(II): 1955년부터 1972년까지.” 『창작과 비평』 8(2), 548-581.
- 이윤범. 2002. “베트남의 정치 · 경제체제의 변화: 도이 머이 정책과 공산당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은호. 1990a. “베트남의 변화: 철군과 개혁.” 『국제문화연구』 7(2), 37-51. 청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 \_\_\_\_\_. 1990b. “중국-소련-베트남의 삼각관계: 생존을 위한 선택.” 『국제문화연구』 7(1), 11-25.
- \_\_\_\_\_. 1997a. “베트남의 정치적 통합과 체제개혁.” 『국제문화연구』 14, 1-17.
- \_\_\_\_\_. 1997b. “베트남의 통합과정과 베트남 인민군.” 『국제문화연구』 15, 103-123.
- \_\_\_\_\_. 1998.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국제문화연구』 16, 3-17.
- 이한우. 1999. “베트남의 농업개혁정책, 1975~1993: 탈집체화의 전개과정.”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1a. “도이 머이 정책 하 베트남 북부 농촌에서 생산조직과 통치구조의 변

- 화: 박닌(Bac Ninh)성 궤보(Que Vo)현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1(1), 219-239.
- \_\_\_\_\_. 2001b. “베트남의 체제 변화와 21세기 발전 방향: 제9차 당대회 결과 분석.” 『국제지역연구』 5(4), 123-145.
- \_\_\_\_\_. 2002a.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동아연구』 42, 93-113.
- \_\_\_\_\_. 2002b. “통일 이후 베트남의 토지제도 전환과정에서 남부 농민의 영향력: 메콩 델타 농민들의 저항행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2(2), 63-95.
- \_\_\_\_\_. 2003. “베트남-중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동아연구』 44, 131-163.
- \_\_\_\_\_. 2006a. “베트남의 선거제도와 국회 구성의 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6(1), 63-91.
- \_\_\_\_\_. 2006b. “한국이 보는 베트남전쟁: 쟁점과 논의.” 『동아연구』 51, 105-147.
- \_\_\_\_\_. 2007a. “베트남 통일 후 사회통합과정의 문제: 남부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대한 주민의 대응과 그 변용.” 『아세아연구』 50(3), 39-63.
- \_\_\_\_\_. 2007b. “베트남에서 개혁의 확대와 정치적 일원주의의 완화 - 제10차 당대회 결과 분석.” 『신아세아』 14(1), 84-108.
- \_\_\_\_\_. 2008. “베트남의 사회주의 개혁과 국회의 변화.” 신윤희환 편.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사회적 변화』.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9. “베트남 통일 이후 남부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계급구조의 변화, 1975~1985.” 『국제·지역연구』 18(4), 65-96.
- \_\_\_\_\_. 2010a. “베트남 ‘도이머이’ 시기 정치체제 변화: 사회적 도전과 당-국가의 대응.” 『신아세아』 17(4), 160-190.
- \_\_\_\_\_. 2010b. “베트남 호찌민박물관과 국가정체성.” 신윤희환 외.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0c. “탈사회주의 이행기 베트남에서 국가-노동 관계.” 『민주주의와 인권』 10(3), 383-421.
- \_\_\_\_\_. 2010d. “현대 한국 소설 속의 베트남 인식.” 『Oughtopia(오토피아)』 25(3), 359-384.
- \_\_\_\_\_. 2011a. 『베트남 경제개혁의 정치경제』.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 \_\_\_\_\_. 2011b. “베트남에서 점진적 개혁의 지속: 제11차 공산당대회 결과 분석.” 『동남

- 아시아연구』 21(3), 105-138.
- \_\_\_\_\_. 2012.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외연의 확대와 체제 변화의 이념적 정당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인도, 동남아시아』.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장두영. 2008. “베트남전쟁 소설론 - 파병담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5, 383-425.
- 장윤미. 2009. “월남전을 소재로 한 한국 소설의 고찰 - 시선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9(1), 113-148.
- 전경수. 1993. 『베트남일기』. 서울: 통나무.
- \_\_\_\_\_. 1995.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독일과 베트남』.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경수 · 한도현. 1996. “현대 베트남 대도시내 농촌 지역의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 하노이 시 싸 다이모의 사례.” 『국제지역연구』 5(3), 103-144.
- 전상인. 1994. “베트남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계급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민족과 문화』 2, 137-157.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109-140.
- 전혜경. 1994. “한·중·월 전기소설의 비교 연구(금오신화, 전등신화, 전기만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6a. 『한국·베트남 설화 비교연구』. 서울: 문예림.
- \_\_\_\_\_. 2006b.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 비교연구』. 서울: 문예림.
- 정연식. 1999. “사회주의시장경제와 조합주의: 중국과 베트남의 시민사회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3(2), 303-324.
- \_\_\_\_\_. 2002. “베트남의 권리의식과 정치변화.” 『동남아시아연구』 12(1), 149-180.
- \_\_\_\_\_. 2005. “베트남의 국내외적 위기와 정치적 대응.” 박사명 편.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서울: 폴리테이아.
- 정연식 · 황영주. 2004.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 지위 변화: 베트남 사례.” 『21세기정치학회보』 14(2), 189-210.
- 정천구. 1986. “중·월전쟁의 원인과 결과.” 『한국과 국제정치』 2(2), 127-154.
- 조규익. 2009. 『베트남의 민간노래』. 서울: 인터북스.
- 趙永植. 1960. 『人間과 創造: 나의 世界一周記』. 서울: 경희대.
- 조재현. 1991. “공산(共產) 베트남 전당대회(全黨大會)와 통치(統治)리더십 변동(變動).” 『동남아연구』 1, 7-35.

- \_\_\_\_\_. 1992. “제3차 인지전쟁연구 - 공산체제내 베트남과 캄보디아간 전쟁의 원인 분석.”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2. “전후 베트남 분단의 원인과 통합의 길.” 『동남아연구』 11, 241-270.
- \_\_\_\_\_. 2006. 『베트남어-한국어사전』,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조재현 · 송정남. 2004. 『베트남 들여다보기』,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조재호. 2011. “베트남 파병과 한국경제 성장.” 『사회과학연구』 50(1), 131-158.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 趙孝源. 1955. 『亞細亞政治論』, 서울: 文鍾閣.
- \_\_\_\_\_. 1959. “월남의 정부조직.” 『지방행정』 8(75), 66-72.
- 채수홍. 2003a. “호치민시 다국적 공장의 정치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6(2), 143-182.
- \_\_\_\_\_. 2003b. “호치민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9(1), 75-108.
- \_\_\_\_\_. 2005. “호치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11(2), 103-142.
- \_\_\_\_\_. 2007.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 교류.” 『비교문화연구』 13(2), 5-39.
- \_\_\_\_\_. 2009. “다국적 공장 레짐의 정치경제학과 베트남의 최근 파업.” 『동남아시아연구』 19(1), 67-111.
- 최귀목. 2010. 『베트남문학의 이해』, 파주: 창비.
- 최기영. 1985. “국역 『월남망국사』에 관한 일고찰.” 『동아연구』 6, 487-506.
- 최동주. 1996.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2), 267-287.
- \_\_\_\_\_. 2001.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연구』 11(1), 205-244.
- 최병욱. 2000a.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소수민족 정책 - 남부의 상황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9, 127-163.
- \_\_\_\_\_. 2000b. “19세기 전반(1823~1847) 베트남의 동남아시아 官船貿易.” 『동양사학연구』 70, 161-197.
- \_\_\_\_\_. 2002. “19세기 중반 남부베트남의 대외교역과 베트남 상인층의 성장.” 『동양사학연구』 78, 201-233.
- \_\_\_\_\_. 2003a. “16~17세기 호이 안과 베트남의 대외무역.” 양승윤 외 편. 『바다의 실크

- 로드』, 서울: 청아출판사.
- \_\_\_\_\_. 2003b. “19세기 남부베트남의 여성상: ‘음탕함’과 그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13(1), 165-198.
- \_\_\_\_\_. 2004a. “베트남의 서부고원지대 진출과 산지인 문제.” 오명석 편.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 서울: 오름.
- \_\_\_\_\_. 2004b. “까오 바 콧(Cao Ba Quat 高伯適)의 반란(1854) 원인에 대한 일 고찰.” 『동남아시아연구』 14(2), 113-153.
- \_\_\_\_\_. 2006a.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서울: 대한교과서.
- \_\_\_\_\_. 2006b. “전통시대 베트남 여성의 교역활동: 촌락에서 대양으로.” 『동양사학연구』 96, 149-174.
- \_\_\_\_\_. 2008a. “19세기 중반 남부베트남의 공장(工匠) - 비엔 호아 도자기 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18(1), 213-242.
- \_\_\_\_\_. 2008b. “20세기 통일 베트남 만들기: 지역주의의 충돌과 극복.” 『한국학연구』 18, 301-328.
- \_\_\_\_\_. 2008c. “동남아시아 국가 형성과 이주.” 『동양사학연구』 103, 215-232.
- \_\_\_\_\_. 2008d. 『최병욱 교수와 함께 읽는 베트남 근현대사』, 서울: 창비.
- \_\_\_\_\_. 2009a. “19세기 베트남의 단일민족 만들기 - ‘漢夷有限’에서 ‘一視同仁’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3, 73-98.
- \_\_\_\_\_. 2009b. “이수광(李睟光)의 베트남, 1597~1598.” 『동남아시아연구』 19(3), 31-55.
- \_\_\_\_\_. 2010a. “19세기 남부베트남 문학과 반불투쟁 - ‘룩 번 띠엔(Luc Van Tien)’을 중심으로.” 『동아연구』 58, 257-286.
- \_\_\_\_\_. 2010b. “베트남의 캄보디아 병합(1835-1847) - 여왕 메이(Mei)의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연구』 20(2), 1-29.
- \_\_\_\_\_. 2011a. “19세기 베트남 관선의 광둥(廣東) 왕래 시말.” 『동남아시아연구』 21(3), 1-42.
- \_\_\_\_\_. 2011b. “19세기 전반 베트남 제국(帝國)의 국제질서.” 『동남아시아연구』 21(1), 249-286.
- 崔常壽. 1966. 『韓國과 越南과의 關係』, 서울: 韓越協會.
- 최용호. 2005.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민사심리전 수행방법과 결과.”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최정기. 2009.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공식적인 기억과 대항 기억의 차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9(1), 65-92.

- 崔致崙. 1958. 『오늘의 東南亞細亞』,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최호림. 2003a. “베트남 도시 마을에서의 국가-사회관계: 하노이 ‘프엉 응옥 하(Phuong Ngoc Ha)’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9(1), 29-74.
- \_\_\_\_\_. 2003b. “베트남의 의례활성화와 국가-사회관계: 하노이의 한 프엉(坊)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03c. “북부베트남의 민간의례 개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36(2), 183-220.
- \_\_\_\_\_. 2003d. “전통의 재생과 국가: 베트남 하노이의 지역공동의례 활성화.” 『동남아연구』 12, 1-24.
- \_\_\_\_\_. 2004. “베트남의 ‘유적공인’ 사업과 지방의 이질적인 공동체.” 『동남아시아연구』 14(1), 121-161.
- \_\_\_\_\_. 2005. “사회주의 국가, 시장 및 ‘전통’의 재생: 베트남의 체제변화와 의례 활성화.” 『사회과학연구』 13(2), 314-347.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_\_\_\_\_. 2007. “베트남의 문화정책 담론: 전통의례와 ‘민족화’.” 『아세아연구』 50(3), 64-92.
- \_\_\_\_\_. 2008. “베트남의 시민사회와 NGO: 현황과 평가.” 『민주주의와 인권』 8(2), 267-307.
- \_\_\_\_\_. 2009. “베트남 전쟁과 관광: 과거의 체현과 진정성의 경험.” 『동아연구』 57, 269-313.
- \_\_\_\_\_. 2010a.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 지역 거버넌스.” 『동남아시아연구』 20(2), 135-178.
- \_\_\_\_\_. 2010b. “베트남민족학박물관: 박물관 정책과 민족문화 정책성.” 신윤환 외 편. 『동남아에서 국가정체성의 구축과 성격: 국립박물관과 기념물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2010c.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동남아연구소 편. 『동남아의 한국에 대한 인식』, 서울: 명인문화사.
- \_\_\_\_\_. 2010d. “‘월남전 참전용사’의 전직지 관광과 전쟁기억의 재구성.” 『비교문화연구』 16(2), 71-114.
- \_\_\_\_\_. 2011a. “남부 베트남과 미국 문화의 유산 - 통일 후 인식과 비판, 1975~81년.” 강희정 편. 『외부 세계와 동남아』, 서울: 이매진.
- \_\_\_\_\_. 2011b. “종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 사이 - 베트남 민족학박물관 건립 과정의 문화정치.” 최호림 편. 『동남아시아의 박물관: 국가 표상과 기억의 문화정치』, 서

- 을: 이매진.
- \_\_\_\_\_. 2012. “베트남의 소수종족과 국가: 종족분류체계 및 종족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방사와 지방문화』 15(1), 527-567.
- 최희재. 2010. “월남, 조선과 1860~80년대 청조 조공국정책의 재조정.” 『역사학보』 206, 179-209.
- 통계청. 2012. “2011년 혼인·이혼통계.” 통계청. <http://kostat.go.kr>.
- 表文化. 1958. 『國防地政學講義』. 서울: 우성사.
- 하순. 2000. “메콩델타 - 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제지역연구』 4(2), 81-112. 국제지역학회.
- \_\_\_\_\_. 2003. “미국 내 베트남인 커뮤니티: 형성과 발전.” 『베트남연구』 4, 151-172.
- \_\_\_\_\_. 2007. “미국거주 베트남 이민자들의 종족 정체성.” 『베트남연구』 8, 137-164.
- \_\_\_\_\_. 2011. “베트남계 미국인의 초국가주의와 민족 정체성 - 1.5세와 2세를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20(1), 261-193.
- 한국베트남학회 편. 2000. 『베트남』.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한도현. 1998. “베트남의 농촌개혁과 주민복지.” 『농촌사회』 8, 161-185.
- \_\_\_\_\_. 2000. “시장 경제 도입 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동남아시아연구』 10, 67-94.
- \_\_\_\_\_. 2003a. “전통시대 한국과 베트남의 농촌사회조직에 대한 비교연구.” 『농촌사회』 13(2), 207-244.
- \_\_\_\_\_. 2003b. “향약의 조직원리와 지역자치: 베트남 모짜싸(xa Mo Trach, 慕澤社)의 사례.” 『동남아시아연구』 13(2), 287-322.
- \_\_\_\_\_. 2005. “한국과 베트남의 종족마을(동성마을)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 종족집단의 구조와 종족의식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5(2), 161-209.
- 한상도. 2009. “일제 침략기 한국인의 베트남 인식과 연대의식 - 식민지 상황 인식과 반일의식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201, 125-164.
- 한상선. 1965. “월남시장에 관한 실증적 고찰.”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한홍구. 2001. “한국과 베트남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4, 115-126.
- \_\_\_\_\_. 2003.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화.” 『역사비평』 62, 120-139.
- 咸在健. 1965. 『이것이 베트남이다』. 서울: 教材文化社.
- 함택영. 1989. “베트남의 독립, 분단, 통일: 농민혁명과 민족해방.” 『한국과 국제정치』 5(1), 1-24.
- 허경진·김성은. 2011. “표류기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 『연민학지』 15, 275-289.

- 홍규덕. 1991. “미국·베트남 관계정상화과정과 요인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7(2), 181-204.
- \_\_\_\_\_. 1992. “파병외교와 안보신드롬 - 60년대 한국 외교정책의 평가.” 『국제정치논총』 32(2), 23-44.
- \_\_\_\_\_. 1993.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전망과 대응책.” 『동남아시아연구』 2(1), 221-242.
- \_\_\_\_\_. 1997. “베트남의 대외경제정책과 대미관계 개선전망.” 『동남아시아연구』 5(1), 149-178.
- \_\_\_\_\_. 1999. “베트남전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
- 홍석률. 2009. “위험한 밀월: 박정희·존슨 행정부기 한미관계와 베트남전쟁.” 『역사비평』 88, 216-243.
- 황귀연. 1996. “베트남공산당의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3.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 1991년 관계정상화 이후 10년간을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4, 83-103.
- \_\_\_\_\_. 2005. “한국·베트남의 정치외교 및 경제통상관계의 발전과 전망.” 『베트남연구』 6, 1-28.
- 항병무. 1986. “베트남과 중공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 273-300.
- 金成蘭. 2006. “베トナム戦争期のベトナム労働党による人民動員宣伝.” 東京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 古田元夫. 2000. “日本におけるベトナム研究.” 木村汎/グエン・ズイ・ズン/古田元夫 編. 『日本・ベトナム關係を學ぶ人のために』. 京都: 世界思想社.
- 金永鍵. 1943.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 東京: 富山房.
- 山本達郎 編. 1975.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 チェ・ホリム(崔昊林). 2010. “韓國へのベトナム人移住労働 - 政策, 社會資本, 仲介業および連鎖移住.” 『東南アジア研究』 48(3), 242-264.
- Ahn, Kyong Hwan. 1996. “Trat tu tu trong tieng Han so sanh voi tieng Viet.” Luan an Pho tien si Khoa hoc Ngu van. Dai hoc quoc gia Thanh Pho Ho Chi Minh, Truong Dai hoc Khoa hoc Xa hoi va Nhan van.
- Bae, Yang-Soo. 2001a. “So sanh Boi canh Xa hoi va Van hoa Thoi dai Truyen Kieu

- va Truyen Xuan Huong.” 『아시아지역연구』 4, 160-189.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시아지역연구소.
- \_\_\_\_\_. 2001b. “So sanh Truyen Kieu va Truyen Xuan Huong.” Luan an Tien si. Truong Dai hoc Su pham Ha Noi.
- Cho, Jae Hyun. 1994. “Quan he Han quoc – Viet nam: Qua khu, Hien tai va Tuong lai.” 『동남아연구』 3, 135-150.
- Kim, Hyun Jae. 2005. “Gia dinh va hon nhan cua nguoi Han: so sanh voi gia dinh va honh nhan cua nguoi Viet.” Luan an Tien si Dan toc hoc. Dai hoc Quoc gia Thanh pho Ho Chi Minh, Truong Dai hoc Khoa hoc Xa hoi va Nhan van.
- Kim, Jongouk. 2009. “Mot so bien doi o lang xa chau tho Song Hong tu dau the ky XIX den giua the ky XX (Qua truong hop lang Me Tri).” Luan an Tien si Lich su. Dai hoc Quoc gia Ha Noi, Truong Dai hoc Khoa hoc Xa hoi va Nhan van.
- Lee, Kang Woo. 2003. “Qua chinh doi moi doanh nghiep nha nuoc o Viet Nam 1986~2000.” Luan an Tien si Lich su. Dai hoc Quoc gia Ha Noi, Truong Dai hoc Khoa hoc Xa hoi va Nhan van.
- Song, Jung Nam. 1996. “Lang Yen So tu truyen thong den doi moi va so sanh voi nhung bien doi o nong thon Han Quoc.” Luan an Pho tien si Lich su. Dai hoc Quoc gia Ha Noi, Truong Dai hoc Khoa hoc Xa hoi va Nhan van.
- Chae, Suhong. 2003. “Spinning Work and Weaving Life: The Politics of Production in a Capitalistic Multinational Textile Factory in Vietnam.” Ph.D. Dissertation, City University of New York.
- \_\_\_\_\_. 2011. “The Dynamics of a Multinational Factory Regime and Recent Strikes in Vietnam.” Anita Chan, ed. *Labour in Vietna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oi, Byung Wook. 1999.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Doctoral Thesi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_\_\_\_\_. 2003. “Vietnamisation of Southern Vietnam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Asian Ethnicity* 4(1), 47-65.
- \_\_\_\_\_. 2004a. *Southern Vietnam under the Reign of Minh Mang (1820-1841)*:

- Central Policies and Local Response*. Ithaca: South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 \_\_\_\_\_. 2004b. "The Nguyen Dynasty's Policy toward Chinese on the Water Frontier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Nola Cooke & Li Tana, eds. *Water Frontier: Commerce and the Chinese in the Lower Mekong Region, 1750-1880*. Lanham: Rowman & Littlefield.
- \_\_\_\_\_. 2012. "Korean Ginseng (*nbân sâm Cao Ly*) in Vietnam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동남아시아연구』 22(3), 39-73.
- Choi, Horim. 2007. "Ritual Revitalization and Nativist Ideology in Hanoi." Philip Taylor, ed. *Modernity and Re-enchantment: Religion in Post-revolutionary Vietna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Han, Sungjoo. 1978.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Conflict: An Analysis of the U.S.-Korean Alliance." *Orbis* 21(4), 893-912.
- Jeong, Yeonsik. 1997a. "Interest Representation in Socialist Market Economies: A Comparative Study of Civil Society in China and Vietna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_\_\_\_\_. 1997b. "The Rise of State Corporatism in Vietnam."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9(2), 152-171.
- Kim, Jee Young. 2004. "Political Capital, Human Capital, and Inter-generational Occupational Mobility in Northern Vietnam." Philip Taylor, ed. *Social Inequality in Vietnam and the Challenges to Refor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2011. "How Does Enterprise Ownership Matter? Labour Conditions in Fashion and Footwear Factories in Southern Vietnam." Anita Chan, ed. *Labour in Vietnam*.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Kim, Se Jin. 1970. "South Korea's Involvement in Vietnam and it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Asian Survey* 10(6), 519-532.
- Kwon, Heonik. 2006. *After the Massacre: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2008. *Ghosts of War in Vietna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Eun-Ho. 1972. "The Role of the Military in Nation-building: South Vietnam and Korea."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 Lee, Han Woo. 2003. "'Korean Wave' in Vietnam." Sa-Myung PARK & Supachai Yavaprabhas, eds. *Regional Cooperation and Identity Building in East Asia*. Seoul: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 ASEAN University Network.
- \_\_\_\_\_. 2005. "Remembering the Vietnam War in Korean Novels." Yoon Hwan SHIN, ed. *Relations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in the Past*. Bangkok: ASEAN University Network & KASEAS.
- Nho, Young Soon. 2000. "A History of the Indochinese Communist Party, 1930-1936."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London.
- Park, Joon-Young. 1981. "The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South Korea's Vietnam Involvement, 1964-1973." *Korea and World Affairs* 5(3), 471-489.
- Shimao Minoru and Sakurai Yumio. 1999. "Vietnamese Studies in Japan, 1975-96." *Acta Asiatica: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Eastern Culture (The Toho Gakkai)* 76, 81-107.
- Youn, Dae-yeong. 2007. "Les idées et les mouvements réformistes en Corée et au Viêt Nam, 1897-1911: la tradition, le 'nouveau savoir' à travers les 'nouveaux écrits', et leur interactions." Univ. de Paris VII, 박사 학위 논문.
- \_\_\_\_\_. 2011. *Les idées et les mouvements réformistes en Corée et au Viêt Nam, 1897-1911: la tradition, le nouveau savoir à travers les nouveaux écrits, et leurs interactions*. Sarrebruck: Editions universitaires européennes.
- Yu, Insun. 1978. "Law and Famil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_\_\_\_\_. 1990. *Law and Society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Vietnam*. Seoul: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 \_\_\_\_\_. 1999a. "A Re-examination of America's Indochina Policy During the French Pres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6(2), 75-90.
- \_\_\_\_\_. 1999b. "Bilateral Social Pattern and the Status of Women in Traditional Vietnam." *South East Asia Research* 7(2), 215-231.
- \_\_\_\_\_. 2001. "The Changing Nature of the Red River Delta Villages during the Lê Period (1428-1788)."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2(2), 151-172.
- \_\_\_\_\_. 2006. "Le Van Huu and Ngo Si Lien: A Comparison of Their Perception of Vietnamese History." Nhung Tuyet Tran & Anthony Reid, eds. *Viet Nam:*

*Borderless Histories*.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http://www.kri.go.kr>

<http://www.riss.kr>

---

**Abstract**

## Vietnamese Studies in Korea

Han Woo Lee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Academic interests towards Vietnamese studies in Korea inclined as a result of people's political concerns, when Korean troops were dispatched to South Vietnam in mid 1960s. However, it gradually died out at the end of the Vietnam War, and it was not until the early 1980s that academic researches on Vietnam began in Korea. After the launching of the 'Doi Moi' reform policy in Vietnam in 1986 and the normaliz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Vietnam in 1992, these changes opened up a new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and urged Korean scholars to conduct related researches out of the practical need for knowledge on Vietnam. Korean scholars were also interested in examining the case of Vietnam in order to fi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ir unification and social integration after the unification.

Increasing concerns on Vietnam gave rise to a boom on Vietnamese Studies from mid 1990s to mid 2000s for roughly 10 years, giving birth to the second generation of Korean scholars majoring in Vietnam. During these years, the increasing exchanges between two countries have fostered a greater need to understand Vietnam. Accordingly, researches on socio-economic issues and business have shown a drastic increase, which reveals how closely the Vietnamese studies in Korea are affected by social factors. For Vietnamese studies to advance in Korea, constant quantitative growth

should proceed their qualitative improvement.

**Keywords |** Vietnam, Korea, Southeast Asia, area studies, case studies